

# Avantgarde

홀게르 프로메 사장

인터뷰어 | 최성근



2008년 4월, 국내 하이파이 최대 쇼인 아이어쇼가 열렸다. 아이어쇼에는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유명 메이커의 관계자들이 찾아온다. 자사의 제품을 국내 오디오파일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고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런데 이번 쇼에서 반갑게도 아방가르드 관계자들이 찾아왔다. 무엇보다 더욱 반가운 것은 아방가르드의 사장인 프로메 씨가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국내에서 아방가르드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 재미있는 인터뷰가 될 것 같다.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방문은 아이어쇼와 관련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아이어쇼에서 아방가르드와 관련하여 어떤 홍보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방문은 전적으로 한국 디스트리뷰터인 태인기기를 위해 온 것입니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아방가르드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내에서도 그리 유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뜻하지 않게도 해외의 어떤 바이어가 우리 스피커를 수입하고 싶다는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바이어가 바로 태인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스피커를 제작하여 수출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인기기와 우리 아방가르드의 인연은 각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인기기를 도와 이번 아이어쇼에서 아방가르드의 우수성을 재확인시켜 드리러 온 것입니다. 일정상 며칠 후면 독일에서도 큰 쇼가 있어 준비에 바쁜 시기지만 그만큼 태인기기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디스트리뷰터입니다.

아방가르드하면 떠오르는 것이 스페리컬 혼입니다. 180도의 방사 범위를 가진 이 혼의 방식은 소리도 우수하고 디자인 역시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방가르드의 혼 컬러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스페리컬 혼이 가지는 소리의 우수성과 이런 색을 뽑아낼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페리컬 혼은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보면 한 번씩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인 혼의 디자인은 많은 디스토션을 유발합니다. 소리가 뿔어 나가는 데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무시하고 디자인된 혼이 대부분입니다. 소리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모르겠으나 좋은 소리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디스토션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혼 타입이지만 디스토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소리의 패턴을 연구했고, 그 패턴대로 소리가 방사될 수 있게 수많은 디자인을 그려냈지요. 그 작업의 완성판

이 바로 우리의 스페리컬 혼입니다. 스페리컬 혼은 음을 다른 혼처럼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컴프레서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고 다이렉트 라디에이터 방식의 유닛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혼의 디자인에 맞는 유닛까지 직접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무척 큼니다. 한때는 컴프레서 드라이버를 제작할 수 있는 대형 스피커 제작사에 우리 제품에 맞는 드라이버를 제작해 달라 하니 최소 20만개 이상 주문한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그 일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우수한 드라이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예를 하나 들까요? 가장 이상적인 진동판은 무엇일까요? 민첩하게 반응하는 가장 가벼운 진동판입니다. 하지만 어떤 메이커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아주 무거운 진동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주파수 배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방가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에 최적화된 주파수를 진동판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도 이뤄낼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 강점인 것입니다. 초창기와 비교하면 우리의 기술력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페리컬 혼에 적용된 컬러에 대한 칭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혼에 색을 입히는 기술력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독일은 화학기술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벤츠나 BMW, 포르쉐 등에 입혀진 자동차 컬러를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겁니다. 우리 스페리컬 혼에도 여기에 쓰이는 도색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피커 마감보다는 확실히 뛰어나고 아름답다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대단하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스페리컬 혼에 ABS 수지로 성형한다고 들었는데 더 좋은 음을 위해서 카본 파이버나 다른 물질을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페리컬 혼 디자인을 구현할 수많은 물질을 연구했습니다. 말씀하신 카본 파이버도 사용해 보고 금속으로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물질은 고유의 공진 주파수가 있습니다. 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에서 나올 수 있는 공진에 의한 왜곡이 가장 아름답게 들린 것

은 현재의 ABS 수지입니다. 카본 파이버로 디자인했을 땐 너무 음이 딱딱해졌습니다. 금속의 경우에는 음이 너무 심하게 집중되고 어두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형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많은 소리의 패턴을 연구하고 그 패턴에 방해가 가지 않기 위해 완벽한 스페리컬 혼 디자인을 완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카본이나 금속의 경우 성형이 ABS 수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보다 좋은 소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ABS 수지를 이용한 성형도 우리가 만족할 만큼 완벽한 수준의 결과물을 쉽게 얻기 어렵습니다.

아방가르드에는 트리오 + 6 베이스혼과 같은 거함이 있는데 고능률을 지향하다 보니 앰프 매칭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방가르드는 자사 스피커를 위한 소출력 앰프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방가르드 스피커들 모두가 100dB이 넘는 고능률을 지향한다는 건 아실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보통 스피커의 음압은 89dB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피커 중에는 109dB의 능률을 가진 스피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크기의 소리를 출력하는데 우리 스피커는 앰프의 힘을

1/100밖에 필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잔류 노이즈와 같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앰프를 물렸을 때는 노이즈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급한 앰프의 성능이 우리 스피커를 괴롭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것이 우리 제품에 맞는 고품질 앰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능률 스피커에 장착하여 구동하는 대출력 앰프로 우리 스피커를 100% 울리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앰프를 제작한 후에 우리 스피커에 대한 평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아쉽지만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할 시간 같습니다. 끝으로 월간 오디오 독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방가르드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생각합니다. 아방가르드가 여러분의 음악 생활에 얼마나 만족감을 드리고 있는지,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없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가장 완벽한 스피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품 개발에 임한다면 언젠간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스피커를 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희 아방가르드를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즐거운 음악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A**